



바다에서 바라본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촬영 : 김현곤)

사람들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다. 따라서 땅에 서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버드대학의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교수가 『총균쇠』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이주와 팽창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선 우리 민족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반도에 입지했으면 서도, 정작 바다를 통해 세계로 이주하고 팽창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가 일제식민지 통치라는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육지로부터의 사고’를 ‘바다로부터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도 시의적절하다. 차를 타고 달려보는 해운대의 달맞이고개는 카페와 식당, 해안가의 노송의 천지일 뿐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라본 달맞이 고개는 어느 외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독도와 요트 'Bona'호(촬영 : 김현곤)

### 국토의 막내 독도

독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었던 어느 정객은 한일회담에서 한일 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정말 독도는 정부 주장처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일본이 분쟁화하는 것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온 국민이 쫓겨하여 일본과 맞장을 떠 사생결단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조선시대 안용복과 해방 후 독도수비대의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믿음과 행동이다.